



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

글 | 문 종 석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관장
jsmoon40@hotmail.com

여는 글

2011년 하반기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본다. “한국은 진정 다문화 사회인가? 아니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가?” 뜬금없다고도 하겠지만 이러한 근원적 질문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과연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는지, 또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여전히 단일문화권의 다수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도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다문화서비스인가? 당장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설정하고 나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을수록 우리의 시행착오는 줄어들 것이고, 더불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고민을 먼저 시작한 책임감으로 쓰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문화를 중심에 놓고 그 주체들과 소통하고, 고민하려는 자세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 역할이 매우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야말로 다양한 책 속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담고 있고, 책 속에서 다양한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의 주체들인 이주민들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성장은 다문화사회의 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 과제를 이루어내는 데에 도서관의 역할은 그 어떤 교육기관과 사회시스템보다도 정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인프라구축이 우선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된 초기 단계로 기존의 도서관 운영체제에서 다국어 장서와 프로그램 등 주로 다문화 관련 서비스를 일부 도입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필자는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주제로 한 책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도서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탐방 대상에 다문화도서관이라고 명명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주 탐방지로 선정된 국내 도서관 대다수가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나 그 자녀들을 위한 책 읽기, 책 놀이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아울러 일부 도서관들에서는 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등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 도서관 대부분은 다문화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문화서비스의 개념과 형태, 내용 등에서 이제 막 구체적인 상(像)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다수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주변 다른 도서관들은 물론이고 도서관 주변에 위치한 학교,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한국의 공공도서관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들과 그 현실화 방안은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서술된 내용들은 이 같은 고민 지점 아래에서 그 해결점 모색해 보고자 고민한 결과이다.

현장 탐방을 통해 우리는 최근 국내 도서관 내에 다문화서비스라는 화두가 부상하고, 이와 관련해 사서, 정책 담당자 등 도서관인들의 주된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내 도서관들의 운영주체와 그 형태가 제각기 달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려웠던 도서관 내부적 요인과 다문화사회의 진입이라는 외부적 요

인이 맞물려 최근 도서관계에 더욱 큰 과제로 부여된 다문화서비스와 협력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 다문화국가들과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현저히 다르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양상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 내 도서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문화서비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할 지 국내 사례조사와 해외사례 조사를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진행해 나가면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도출된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거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판단' 이다.

둘째, 이렇게 조사된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한 다국어 도서자료와 인력 등 관련 '인프라의 구축' 이다.

셋째, 인프라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가운데 그 첫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 이다.

넷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도서관에서는 거점과 지역으로 나뉘는 관내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여 각 도서관들이 담당할 수 있는 '명확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그리하여 단순히 누군가가 찾아오는 도서관으로서의 정적인 역할 혹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찾아오도록 만들고, 찾아가는 적극적이고도 동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다문화가정 또는 이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돕거나 지원해야한다는 사고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도서관의 평생 손님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도서관 특히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식구들인 지역의 이웃들이 다문화가정과 서로 서로 그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한다. 책을 매개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살아가는 이야기와 일상의 내용으로 소통하는 생활 공동체가 되어야한다. 도서관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물론, 국내 도서관들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극적 차원의 서비스를 넘어 직접 찾아가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먼저 다가가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 서비

스를 시작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다. 또한 주변의 지역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들의 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했던 사례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도서관과 그 안의 사람들이 아직은 불안정한 사회 시스템과 부족한 인프라의 문제로 더 이상 열정의 날개를 꺾거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이다. 그래서 비록 한국과는 역사적 배경과 문화, 언어, 사회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면모를 가진 해외 도서관들을 살펴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다

우리는 선진국이자 이민국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관점에서 선진국은 어떤 다문화서비스를 할까 궁금했지만 오히려 이들 나라는 서비스라는 관점이 아닌 이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주민들을 어떻게 그 나라의 사회시스템에서 문재 없이 살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나라에는 도서관 이전에 도서관이 지닌 '모두를 위한 공공성'이라는 가치와 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료, 인력이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고, 그 위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본관과 분관, 지역 도서관끼리의 협력 통로와 협의체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관이라는 의미의 중앙(Central)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다시피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나 권력의 의미만을 뜻하지는 않았다. 물론, 전체적인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주체가 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서 담당하는 주된 의미는 지원(Support)으로 오히려 지역의 작은 분관 도서관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요구되는 지역적 특성이 맞는 서비스를 해 나가기 위한 지원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 차원의 기본적인 브로슈어나 프로그램, 포스터, 홍보, 수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 기본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정보 제공처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의 작은 도서관들이 그 지역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다문화서비스를 중점영역을 다룰 수 있는

거점 도서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봄직하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이나 밴쿠버의 공공도서관 시스템들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주민들이 도서관을 찾아왔을 때 1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언어 안내 자료제작과 배포, 수서와 장서 관련 업무, 목록 작성 및 홍보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거점 도서관으로부터 나와 각 지역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협력 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별도서관 하나하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형태와 규모가 다른 도서관들이 자신들의 특징에 맞게 다문화서비스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여기에서 거점이라 함은 앞서도 언급해 왔듯이 '본관'이 감당해야 할 기능적 역할을 의미하며, 경기도와 대구, 인천 등의 사례에서도 그 초기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도서관의 규모나 권위 혹은 권력으로서의 중앙(Central) 혹은 센터(Center) 도서관이 아닌 협력체계를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거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도서관의 경우 모든 것을 다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을 제대로 파악해 그 특성과 지역 차원의 욕구, 필요를 제대로 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들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역 도서관의 차원에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서 공유된 자료들을 1차적으로 구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밀착된 고유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2차적인 서비스가 포함된다. 즉,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언어 커뮤니티를 제대로 파악하여 규모가 큰 순서대로 가능한 만큼 우선적으로 다언어 자료와 안내문, 다국어 구사 가능 사서를 배치하되, 도서관에 찾아오지 못하는 이민자나 소수국가의 이민자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화통역,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국가나 도서관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기조, 입장, 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현실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관점은 무엇인가? 또한 그 안에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국제도서관협회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다문화도서관 선

언을 참고해 보직 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이 지녀야 할 사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의 공통 유산이며, 만인의 이익을 위해 소중히 여기고 보존되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 간의 교류, 혁신, 창의, 평화적 공존의 원천이다.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풍토에서 문화의 다양성, 관용, 대화, 협력을 존중한다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최고로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관종의 도서관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지지하며 촉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문화간의 대화와 적극적인 시민 정신에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¹⁾

위에서도 뚜렷이 명시하고 있듯 도서관은 공공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반영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들이 지닌 문화와 언어, 배경이 자유롭게 어우러지고 교류되어야 하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서 언급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토론하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공간, 미래가 만들어지는 공간인 도서관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그렇기에 감히 제안해 본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도서관이 주도해 보면 어떠한가.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도서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배경도, 언어도, 나이도, 성별도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사회의 유일무이한 공간이다. 이 안에서 사람은 그 사람으로 대접하고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이 지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 이를 가슴 깊이 새긴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현실 직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행동 즉, 앞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필요할 때다.

우리가 해외의 도서관들을 방문하며 공공도서관 협력 시스템의 힘과 그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힘이었다. 제대로 된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물론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도서관을 사랑하고 도서관이 지닌 공공성의 힘을 믿는 도서관 사람들의 자부심과 꿈이었다. 도서관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들 자신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믿는지에 따라 도서관은 그저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들러 머무르는 곳 나아가

1) 'IFLA 선언' 참조


사람들이 머물며 어울려 성장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탄생의 역사를 되짚고 운영의 주체를 따지며 현재의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맺음말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제목으로 설정했으면서도 서비스보다는 인프라구축과 철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도서관이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다문화사회의 주체들을 대상화시키고, 일방적 선주민의 방식과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문화서비스라는 이주민들을 돌보고, 도움을 주는 사례는 어찌보면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도서관을 탐방하면서 소개한 한국도서관들의 다문화서비스 사례들은 일본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많은 충격과 자극을 주었고, 그 이후 몇몇의 일본 도서관 관계자들이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를 방문하여 그 사례를 연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부끄러웠던 것은 한국의 사회와 도서관이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서비스에는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즉, 인프라 기반이 너무도 형편없었고, 여전히 이를 위해 투자할 계획조차 안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서관이 스스로의 미래를 고민하며 다시 한 번 일어설 때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면면들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 일상적인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 다문화사회 안의 도서관은 그 어느 곳보다 더 높고 멀리 날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찌보면 이제 시작이다. 조급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그 기능을 고민하고 차근차근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도서관에서부터 다문화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다문화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는 다문화-한문화를 구별짓는 차별부터 없애고 우리들 모두의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꿈꿔본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그중에서도 도서관인들의 역할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 이 글은 「도서관에서 다문화를 만나다」(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2010)의 내용 중에서 참고·첨언한 것입니다.